

야구중계 찾다 보면 결국 사람마다 같은 고민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몇 시야?”, “중계는 어디서 해?”, “취소나 편성 변경은 없나?”, “그냥 결과 보고 싶지, 경기 시작 전에 어디 봐야 하지?” 이런 것들요. 특히 KBO는 하루에 경기가 한 두 경기만 잡히는 날도 있고, 여러 팀이 물리는 날도 있어서 날짜별로 깔끔하게 시간표를 만들어 두면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날짜별 시간표를 만들 때는 “감”이나 커뮤니티 글을 믿기보다, 공식 일정 페이지가 보여주는 그대로를 받아오는 게 제일 덜 헛갈립니다. KBO 공식 일정은 날짜별로 경기 시간, 중계 TV, 라디오, 장소 정보를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라, 시간표 정리를 하려는 목적에 딱 맞거든요. 그리고 같은 “야구중계” 라도 KBO만 보시는 분, MLB도 같이 챙기시는 분이 섞여 있어서, 시간대 차이까지 같이 계산하면 더 편해져요.

아래는 제가 실제로 시간표를 정리할 때 쓰는 관점 그대로, KBO 날짜별 경기 시간표를 만드는 방법이랑, MLB중계 까지 같이 볼 때 자주 생기는 함정을 정리해볼게요. 오늘 바로 써먹게끔요.

날짜별 시간표, 왜 꼭 “KBO 공식 일정”부터 봐야 하나

KBO 경기 시간표를 정리한다고 해도, 결국 핵심은 “그 날짜에 실제로 시작하는 시간이 무엇이나”예요. 일정은 매번 고정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 편성 과정에서는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공식 일정 페이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KBO 쪽 공식 일정 페이지는 “날짜별 경기 시간”이 중심이고, 거기에 더해 “중계 TV, 라디오, 장소”까지 함께 표시돼요. 즉, 시간표를 만들면서 추가로 검색을 더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야구중계사이트를 여기저기 둘러보는 시간보다, 공식 일정 한 장에서 시간, 중계 채널, 장소를 같이 확인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KBO에는 정규시즌 일정이 발표되는 공지 같은 것들도 운영되고 있어요. 다만 그 공지는 “큰 윤곽”을 잡는 용도에 가깝고, 날짜별로 실제 편성된 경기를 확인할 때는 결국 일정 페이지가 실무에 더 맞습니다.



KBO 날짜별 시간표 정리, 화면에서 그대로 옮기는 방식

여기부터는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냐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시간표 정리를 할 때 보통 두 갈래로 가더라고요.

첫째, 그냥 메모장에 “오늘 6시, 8시”처럼 대충 써두는 방식. 둘째, 날짜별로 중계 채널까지 적어서 “누구랑 먹을지, 어디서 볼지”까지 한 번에 정하는 방식.

저는 둘째가 더 편했어요. 특히 평일에는 퇴근하고 보면 “TV로 볼지” “라디오로 돌릴지”가 바로 결정돼야 하거든요. 공식 일정이 TV와 라디오 정보를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날짜별로 적어놓으면 다음 날부터 검색을 거의 안 하게 됨

니다.

정리 형식은 뭐든 상관없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날짜 - 경기 - 시작 시간 - 중계(채널/매체) - 장소”를 한 줄 구조로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날짜 헤더를 하나 두고 그 아래에 경기별로 시간을 적는 형태죠.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오늘은 원정 경기라 장소가 어디지?” 같은 것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루만 제대로 정리해도, 한 주가 편해지는 이유

KBO는 하루에 경기 수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저녁에 몰려 있고, 어떤 날은 상대적으로 텅이 길어요. 이럴 때 시작 시간만 알고 있으면 중계 채널이나 라디오 여부에서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식 일정 페이지에 TV와 라디오가 같이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청”을 바로 결정할 수 있죠.

여기서 실제로 체감되는 건 이런 겁니다.

처음엔 시간표 정리에 10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것 제대로 해두면, 그 다음 날부터는 [오늘 메이저리그 중계](#) “야구 중계 보러 간다”가 아니라 “시간표대로 클릭한다”가 돼요. 검색할 때마다 생기는 변수, 예를 들면 중복 링크, 오타, 날짜 착각, 중계 시작 시간 오차 같은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을 때도 “오늘자 시간표”만이라도 먼저 확정해두는 편이에요. 최소한 TV로 볼 건지 라디오로 갈 건지 결정해두면 그날 컨디션에 맞춰 조절이 되더라고요.

MLB중계까지 같이 챙길 때, 시차는 무조건 계산해야 함

야구중계 수요가 KBO와 MLB가 같이 올라오는 편이라, 아예 “KBO 저녁 + MLB는 심야”처럼 패턴을 만들어 두는 분도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냥 밤에 보면 되겠지” 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일정 자체가 통째로 어긋난 적이 있거든요. 그 뒤로는 시간대부터 맞춥니다.

검증된 정보 기준으로, 한국(서울)은 뉴욕보다 13시간 빠르고, 로스앤젤레스보다 16시간 빠르다고 안내돼 있어요. 즉, 미국 경기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한국에서는 그만큼 더 빨리 당겨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MLB중계는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종종 “심야·새벽 시간대”로 자리를 잡게 돼요. 이건 감이 아니라 시간 차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MLB 관련해서는 시즌 운영 시점도 KBO와 달라요. MLB 공식 쪽에서 2027 정규시즌 개막일을 2027년 3월 25일로 안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KBO 시즌 때랑 똑같이 묶어보면” 일정 맞추기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로, 2026 MLB 올스타전은 7월 14일 필라델피아 Citizens Bank Park에서 열렸고 AL이 NL을 4-0으로 이겼다고 안내돼 있어요. 중계 기준으로는 FOX에서 오후 8시 ET로 안내됐는데, 이것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시간대가 됩니다. 이런 걸 한 번 겪고 나면 “시차 계산 없이는 MLB 시간표를 믿기 어렵다”는 결론이 빨리 나와요.

야구중계사이트 고를 때, 저는 “공식 기반 + 당일 확인 가능”을 봐요

야구중계사이트를 찾을 때는 단순히 무료인지, 화면이 편한지에만 끌리기 쉬운데, 저는 기본기를 먼저 봅니다. 그래야 날짜별로 덜 틀어져요.

KBO와 MLB는 공식 사이트에서 일정·결과·순위 같은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KBO는 날짜별 경기 시간과 함께 TV, 라디오, 장소까지 보여주고, MLB도 일정과 결과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식 일정 정보를 당일에 확인할 수 있는지”가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고, 제가 자주 쓰는 확인 항목만 짧게 적을게요. (목록은 딱 핵심만 담을게요.)

- 날짜별 경기 시간과 중계 채널(또는 매체)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지
- 당일 경기 결과까지 확인 가능한지
- 장소 정보까지 제공해서 일정 오해를 줄이는지
- KBO와 MLB를 함께 볼 경우, 리그 구분이 명확한지
- 편성 변경이 생겼을 때 다시 업데이트되는지

이 정도만 체크해도, “어? 시작 시간이 다르네” 같은 상황이 꽤 줄어듭니다.

“날짜별 KBO 시간표”를 만들 때, 포기하면 안 되는 변수들

날짜별 시간표를 정리하다 보면 은근히 놓치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날짜에 여러 경기가 있는 날은 시작 시간이 서로 가깝게 붙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나는 TV로 보고 싶은데 라디오는 언제 켜야 하지?” 같은 현실 문제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TV와 라디오 정보를 같이 기록하는 게 의미가 커요.

또 장소 정보가 들어가면, 단순히 경기장 위치를 아는 것 이상의 도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팀 경기 날에만 라디오를 틀어두는 루틴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때 장소가 맞아야 “아 오늘 경기 맞네”가 바로 확인돼요. 공식 일정 페이지가 장소까지 같이 보여준다는 점이 여기서 다시 빛납니다.

그리고 날짜 표기를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헛갈리면 망합니다. 특히 MLB중계를 한국에서 볼 때는 날짜가 바뀐 느낌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건 시차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시간표를 적을 때 날짜를 한국 기준으로 잡아두는 게 마음 편해요. 한국은 미국 지역보다 빠르다는 안내가 있으니, 계산은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예시로 보는 시간표 문장, 복붙용 템플릿

여기서는 특정 경기의 실제 시간을 새로 지어낼 수는 없어서, “어떤 형태로 적으면 덜 헛갈리는지”만 보여줄게요. 아래 문장 틀을 그대로 복붙해서, 공식 일정에서 시간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월/일) KBO (팀A vs 팀B), 시작 00:00, 중계 TV: (채널), 라디오: (방송), 장소: (경기장).” “(월/일) KBO (팀C vs 팀D), 시작 00:00, 중계 TV: (채널), 라디오: (방송), 장소: (경기장).”

이렇게 쓰면 최소한 날짜별로 뭐가 있는지 눈에 들어오고, 나중에 누가 물어봐도 “시간표는 이거, 중계는 이거”라고 바로 답할 수 있어요. 야구중계는 결국 대화가 빨라지는 게 진짜 편함이거든요.

KBO와 MLB를 같은 루틴으로 묶을 때의 현실적인 팁

KBO는 대체로 한국 저녁 시간대에 맞춰서 돌아가는 편이고, MLB는 시차 때문에 심야나 새벽 쪽으로 [프로야구 실시간 중계](#) 넘어오는 흐름이 생기기 쉬워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서울이 뉴욕보다 13시간 빠르고 로스앤젤레스보다 16시간 빠르다는 시간 차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을 이렇게 나눕니다.

- KBO는 퇴근 전후로 “그날 시간표 확인”을 먼저 하고, TV나 라디오를 정해두기
- MLB는 경기 시작 시간이 한국에서 어느 날짜, 어느 시간대에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청 여부를 결정하기

특히 MLB는 올스타전 같은 이벤트도 있고, 정규시즌 시점 자체도 KBO와 다르기 때문에 “언제 무슨 경기가 있나”를 달력으로 분리해서 보는 게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올스타전은 7월 14일에 열렸고 중계 안내가 FOX 오후 8시 ET였다고 확인되는데, 이런 이벤트성 일정은 KBO 일정과 섞어서 보면 날짜 감각이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는 별도로 적어둡니다.

마무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인 작업

날짜별 KBO 경기 시간표 정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다만 “공식 일정 페이지가 보여주는 그대로”를 기준으로 잡고, 시간과 중계, 장소를 한 번에 옮겨 적는 것. 그 과정이 쌓이면 결국 야구중계 검색 시간을 거의 없애줍니다.

그리고 MLB까지 같이 보는 사람이라면, 시차는 무조건 계산해두세요. 서울이 뉴욕보다 13시간 빠르고 LA보다 16시간 빠르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해도, MLB중계의 체감 난이도가 확 떨어집니다. 올스타전이든 정규시즌이든, 한국 시간표는 결국 그 차이에서 갈립니다.

원하면, 다음 단계로는 “당신이 자주 보는 요일과 선호 매체(TV인지 라디오인지)”를 기준으로 시간표 양식을 더 딱 맞춰줄 수도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편하세요? 하루에 한 줄로 정리하는 타입, 아니면 팀별로 묶는 타입, 둘 중 어디에 가까운지 말해주면 그 방식으로 맞춰볼게요.